익산 도심 유천생태공원서 수달 발견

지난 1월 노랑부리저어새 이어
희귀동물 잇단 발견…생태복원 효과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속도 내겠다"

수달

노랑부리저어새

익산시 도심 하천에서 수달이 목격됐다. 익산시가 환경친화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방증으로 풀이 된다.

익산시는 금강동 유천생태공원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목격됐다고 6일 밝혔다.

수달은 지난달 30일 금강동 유천생태공원을 방문했던 시민이 발견해 사진으로 촬영,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수달이 발견된 금강동 유천생태공원은 지난 2009년부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화 기술을 통한 수질 정화와 함께 생태습지·하천 복원사업이 진행됐다.

또 생태습지에는 약 1.1㎞의 수로가 설치돼 각종 수생식물과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 조성됐다. 습지 상부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로수길과 전통정원, 미로공원, 하늘언덕 등이 마련됐다.

익산에서는 지난 1월 영등동 소라산 자연마당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가 출현하기도 했다.

익산시는 생태복원 효과를 통해 희귀종의 동물들이 연달아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하천의 자생기능과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해 새만금 수질 개선과 생태습지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각종 수생물들의 안전한 보금자리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익신시의 생태복원은 왕궁면 익산천 하천과 주교제 습지가 지난해 환경부에서 진행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현업축사 매입으로 가축분뇨 오염원을 줄이고 휴·폐업축사 매입 등 상류지역 오염원 제거를 통해 익산천 수질의 경우 사업 시행 전보다 98%가 개선되고 복합 악취는 지난 2012년 대비 87%가 저감됐다. 주교제의 경우에는 붕어와 미꾸라지 등이 서식할 정도로 깨끗한 습지로 거듭났다.

익산시 관계자는 "수달의 출현은 유천생태습지 공원이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되는데 행정과 주민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며 "지속적인 환경 및 수질 개선 활동으로 더 많은 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화장품업체에 개발·시장 개척비 지원

16일까지 6개 업체 신청 접수

남원시는 지역 화장품업체에 시제품과 디자인 개발, 시장 개척비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남원에 입주한 화장품 관련 기업이다.

시제품 개발비는 3개 업체를 선정해 300만원씩을 주며 디자인 개발비는 3개 회사에 200만원씩을 지원한다.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시장 개척비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비도 준다.

이번 지원사업은 남원시가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키우는 화장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남원시는 앞서 화장품 원료 소재 개발과 원료 식물 대량 공급, 원료 물질 추출, 제품화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장품 기업을 위한 대규모 비즈니스센터도 건립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화장품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 올해도 취소

남원시 경관 축제인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됐다. 〈남원시 제공〉

남원의 경관 축제인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면 취소됐다.

남원시는 운봉읍 애향회 철쭉제 축제 관계자과 회의를 열고 '제27회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취소다.

남원시는 운봉 바래봉 철쭉제 방문 자제와 더불어 애향회와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애향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축제 취소를 알리고 지역 곳곳에도 안내 현수막을 부착해 취소 상황을 홍보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귀농인·청년 농업인 농사 짓는법 가르쳐 드립니다"

농업 멘토·멘티 12농가씩 모집
매월 80만원 교육 훈련비 지원

고창군은 지역으로 이주한 신규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선도농가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지원사업(멘토-멘티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고창군은 농사가 처음인 신규 농업인을 오는 9일까지 신청받아 대상자와 연수작물을 선정하고, 20일까지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선배 선도농가도 신청받는다. 연수생(멘티)은 고창군으로 전입해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 이거나, 소정의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교해 고창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입교생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은 교육이수시간, 귀농여부와 지역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멘토(선배 선도농가)는 지역에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추고 5년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다.

농사가 초보인 멘티는 매월 선도 농가의 영농현장에서 최소 10일 이상 최대 20일 이하로 참여해 기술교육 등을 받으면 매월 최대 8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다. 또 선배 선도농가인 멘토는 현장에서 영농기술과 경험 등을 전수하고 매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고창군은 올해 지역내 다양한 분야의 선도농가를 찾아 보다 많은 연수생들이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와 달리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와 사업참여 배제 대상자 항목을 신설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1순위는 신규로 참여하는 선도농가와 고창군에 전입한 2년이내 신규 참여귀농인이고, 2순위는 참여횟수가 적은 선도농가와 연수생이다. 다만 2년 연속(2019~2020년) 사업에 참여했거나 중도 포기한 선도농가와 연수생은 제외된다.

현행열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규 귀농인들이 고창군에 정착해 보다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멘토-멘티 사업'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군산 앞바다 해양사고 전년보다 46% 줄었다

해양경찰 철저한 예방활동 효과

군산 앞바다에서 올해 1분기 발생한 해양사고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해양경찰이 중점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군산해양경찰은 지난 3월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조사한 결과, 선박사고는 20척(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37척(148명)에 비해 46%가 감소했다.

어선(24척→12척)과 레저선박(3척→1척) 사고는 감소했으나 예부선 사고는 증가(4척→6척)했다.

사고 유형은 침수 5척, 충돌 2척, 화재 2척, 장비고장 표류 2척 등으로 분류됐다.

사고 원인은 운항부주의가 9척으로 가장 많았고 정비 불량이 4척, 화기취급 부주의가 2척, 관리소홀 3척 등으로 운항자의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안사고의 경우에는 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7건 대비 28% 감소한 수치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불법 매설 후 방치 군산 주한미군 송유관 철거

옥구저수지 인근 160m 구간

군산시는 주한미군이 불법 매설해 사용하다 폐쇄한 송유관에 대해 국방부가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이번에 제거되는 송유관은 군산 미성동의 옥구저수지 인근 160m 구간에 묻힌 것으로, 미 공군 군산비행장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1940~1950년대에 매설된 8㎞ 길이의 송유관 중 일부다.

군산시가 국방부와 공동 조사를 통해 작년 3월 찾아냈으며, 철거작업은 이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국방부가 지하 송유관이 더 있는지를 추가 조사해 확인되면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옥구저수지 인근을 중심으로 불법 매립된 송유관이 일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발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토양 오염 사실이 드러나면 정화작업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